

2연패 도전 라온퍼스트 ‘내가 제일 잘나가’

출전마 중 1200m 평균기록 가장 좋아
라온더스퍼트, 데뷔 후 모든 경주 톱4
위시미, 전설적 경주마 엑톤파크 자마
대한질주, 지난해 코리아스프린트 2위
장산레이저, 1년 전적 기준 다승 선두

29일 계묘년 첫 대상경주인 ‘세계일보배’(L, 1200m, 국OPEN, 4세 이상)가 랫츠런파크 서울에서 제8경주로 열린다. 4세 이상의 국산 단거리 강자들이 총 3억 원의 상금을 두고 맞붙는 레이스다.

지난해 챔피언은 라온퍼스트, 올해 2연패의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대상경주에는 라온퍼스트 외에 같은 마방인 라온더스퍼트 등 국산마 11마리도 출전한다. 과연 어떤 경주마에게 새해 첫 대상경주 우승의 영광이 돌아갈지 유력 후보 5마리를 정리했다.

●**라온퍼스트**(암, 한국, 6세, 레이팅128, 승률 54.5%, 복승률 59.1%)

디펜딩 챔피언이다. 지난해 세계일보배(L)를 시작으로 대상경주만 7번 도전해 4번이나 정상에 올랐다. 특히 11월 대통령배(G1)에서는 압달 최초로 우승을 했다. 비록 연말에 열린 그랑프리(G1)에서는 기대에 못미치는 6위로 마무리했지만 지난해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두루 우승을 섭렵하며 올라운더의 면모를 뽐내왔다. 이번 출전마 중 1200m 평균기록이 가장 좋다. 지난해 코리아스프린트(IG3)에서 해외 강자들과의 경쟁을 뚫고 3위로 들어오는 등 실력은 의심



29일 랫츠런파크서울에서 열리는 2023년 계묘년 첫 대상경주 ‘세계일보배’에 출전하는 라온퍼스트. 지난해 이 대회서 우승한 디펜딩 챔피언으로 이번 출전마 중 1200m 평균 기록이 가장 좋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할 여지가 없다. 경주 당일 컨디션만 좋다면 2년 연속 우승을 기대할 만하다.

●**라온더스퍼트**(암, 한국, 4세, 레이팅98, 승률 50%, 복승률 83.3%)

2022년 연도대표마 위너스팬을 배출한 머스킷맨의 자마다. 라온퍼스트와는 이복자매 사이다. 지난해 3세 시절 루나Stakes(L) 출전을 시작으로 대상과 특별경주 위주로 출전하며 역량을 길러왔다. 데뷔 이후 출전한 모든 경주에서 4위 안에 들 정도로 실력이 좋다. 단거리, 장거리에 가리지 않는 올라운더의 면모도 라온퍼스트와 닮아있다. 다만, 출전한 모든 대상경주가 압달 한경 경주여서 이번 혼합 경주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변수다. 1200m 평균기록이 1분12초4로 라온퍼스트와 공동 1위다.

1200m 전적이 2회 출전에 승률 100%로 우승후보로 꼽는 데 손색이 없다.

●**위시미**(암, 한국, 6세, 승률 42.9%, 복승률 78.6%)

미스터파크와 같은 전설적인 경주마를 배출한 엑톤파크의 자마다. 라온자매와 함께 이번 경주에서 가장 기대되는 압달이다. 지난해 독섬배(G2), KNN배(G3) 등 출전한 경주마다 2위에 그쳐 아쉬움을 주다 마침내 10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G3)에서 정상에 올랐다. 당시 라이벌 라온더스퍼트를 무려 7마신차로 크게 따돌리고 우승했다. 이때 기록 1분22초4는 현재까지 1400m 최고기록이다. 그동안 중단거리 위주로만 출전했는데, 11월 2000m인 경상남도지사배(G3)에 도전했으나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속

도가 차지하면서 7위에 그쳤다.

●**대한질주**(수, 한국, 5세, 레이팅109, 승률 50%, 복승률 75%)

3세 시절인 2021년 출전하는 경기마다 1위를 휩쓸며 명성을 떨쳤다. 지난해 9월 처음으로 국제무대인 코리아스프린트(IG3)에 나서 해외 강자들과 당당히 실력을 겨뤘다. 당시 처음으로 도전하는 대상경주였지만, 후미에서 침착하게 기회를 엿보다가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4위까지 올라왔다. 10월에는 부경에서 열린 국제신문배(L)에 출전해 마지막 직선주로까지 1위를 달리다가 결승선 코앞에서 ‘코리아스프린트’ 우승마 어머마에게 머리차로 선두를 내주었다.

●**장산레이저**(수, 한국, 5세, 레이팅103, 승률 46.7%, 복승률 66.7%)

현재까지 한국 씨수말 통산순위 1위를 기록 중인 메니피의 자마다. 1년 전적 기준 다승 1위를 달리고 있다. 다른 우승후보들에 비해 대상경주 출전 경험은 부족한 편이지만, 작년 처음 출전한 대통령배(G1)에서 위너스팬과 같은 국산 강호들과 맞붙어 4위로 첫 대상경주 데뷔전을 마쳤다. 이어서 출전한 12월 1등급(1400m) 경주에서는 베테랑 문세영 기수가 기승해 경주 시작부터 끝까지 선두를 달리면서 와이어 투 와이어의 여유로운 우승을 기록했다. 중장거리 경주에 많이 출전했지만 지난해 8월 출전한 1200m 경주 기록이 현재 출전마 최고여서 이번 경주도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브라질 출신 안토니오 기수 300승 한국경마 데뷔 6년만에 값진 성과



안토니오 데이비엘손 기수

브라질 출신 안토니오 데이비엘손 기수가 14일 랫츠런파크서울에서 열린 1경주에서 경주마 오키드벨리와 함께 승리하면서 한국경마 통산 300승을 달성했다.

2006년 브라질에서 데뷔한 안토니오 기수는 브라질과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다 2017년 5월 한국으로 옮겨왔다. 한국 데뷔 2년차였던

2018년 85승으로 서울경마 최다승을 기록했다. 2019년에는 문학치프와 함께 ‘그랑프리’(G I, 2300m)대상경주도 우승했다.

그랑프리를 포함해 총 8번의 대상경주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안토니오 기수는 안정적인 주행으로 매년 14%가 넘는 높은 승률로 경마팬들의 강력한 신뢰를 얻고 있다. 안토니오 기수는 “300승 달성은 간절했고 특별했다”며 “응원해준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올해 최우수 기수를 목표로 많은 우승을 선사하겠다”고 300승 달성 소감을 밝혔다.

마사회탁구단 서효원·최효주, 세계선수권 본선행

한국마사회 여자 탁구단의 서효원과 최효주가 ‘2023세계탁구선수권대회’ 본선 진출을 확정짓고 5월 남아공 더반으로 향한다.

7일~13일 아시아 상위랭커들이 출전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3세계탁구선수권대회 아시아 지역 예선전에서 서효원은 단식 출전권을, 최효주는 단식과 복식(파트너 삼성생명 이시은) 출전권을 모두 따냈다.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2년마다 열리며 서효원은 2021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단식 8강에 오른 바 있다. ‘2023세계탁구선수권대회’ 본선은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다. 1939년 이집트 카이로 대회 이후 84년 만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마사회, 기승능력인증제 지도자 과정 신설

내달 6일부터 전문가 양성 교육
조련 등 19개 과정 500명 모집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2월 6일부터 ‘2023년 말산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과정’을 시작한다.

한국마사회는 2016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후 말산업 분야 컨소시엄 교육을 통해 2022년까지 30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며 말산업 현장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올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컨소시엄 교육은 승마, 조련, 장제 등 19개 과정을 진행해 500명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교

육은 ‘말산업분야 재직자 및 대표자’ 중 말산업 분야 직무능력 향상을 원하는 사람이 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승능력인증제 지도자 과정’을 신설했다. 기승능력인증제는 태권도 단증처럼 승마인의 기승능력을 등급화해 1~7등급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승마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어, 향후 이 제도의 지도자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희망자는 말산업 정보포털 호스피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적합여부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교육대상자로 선발된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교육생의 교

육비는 전액 면제되며 1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소속 교육생은 교육비의 80%가 지원된다. 교육은 과천, 경기, 제주 지역 내 마사회 및 협력시설의 교육장에서 이뤄진다. 과정별로 교육장소 및 시행기간이 다르다.

정기한 한국마사회장은 “지난해 코로나 19라는 터널을 벗어나 말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말산업 분야 기업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고 나아가 말산업 재도약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 웰케어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류 • 원산지 : 양배추작즙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 웰케어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닮습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웰케어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330-9988